

##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의 인물성격과 편집증적 부모서사

하은하\*

— <차 례> —

1. 서론
2.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의 인물성격
3.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의 편집증적 부모서사
4.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가 우리 삶의 어떤 구체적 인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작품 속에서 이인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허미수의 처신은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해결하고 있는지를 살피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변신, 짐승 원귀, 환생이라는 화소들이나 전설의 장르적 관습에 대한 주목 대신 서사 속의 핵심 인물과 성격 그리고 인간관계에 주목하였다.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의 핵심 인물은 허미수, 허적의 아버지, 허적 세 사람인데 이들은 삼촌, 아버지, 아들이라는 가족 관계 속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구렁이가 사실은 자식이며 구렁이를 죽이라는 삼촌의 요구는 자식의 정체가 의심스럽다는 판단이고, 아버지의 머뭇거림은 부정(父情)으로 인한 망설임이라는 상황을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또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의 줄거리 전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세 인물의 성격을 분석하였는데 첫째, 아버지는 소심하며 자기 확신과 자기 정당성이 약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이 높았지만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려 애쓰는 성격이었다. 둘째, 허미수는 이인이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그 실상은

\* 서울여자대학교, 강사

자기중심적이고 독단적이며, 체제 지향적이어서 역모와 관련해서는 자식까지도 죽이라고 강요할 만큼 냉혹한 성격이었다. 셋째, 아들 허적은 자신의 능력이나 위상에 대한 자의식이 강하고, 편안하게 살기 보다는 자신의 세계를 열어가려 하는 도전적인 성향으로 규범에 굴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다음으로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는 서사의 주체인 아버지가 대상인 아들을 의심해서 밀치는 ‘자녀밀치기서사’였다. 그런데도 이야기 내부에서는 자녀를 의심하고 밀치는 허미수의 판단이 옳은 것이며 이인적인 면모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허미수의 냉혹함과 아이의 비범함, 아버지의 참담함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없었다. 이것은 이 서사 속의 주체인 부모의 의혹이 병적일 만큼 치밀했기 때문이었다. 이 서사에서는 선후 관계의 사건을 인과관계로 논리화하거나, 현실 자체에 대한 왜곡은 없지만 그 중요성을 왜곡하며, 대상에게 모든 악한 것을 투사하고 아버지는 희생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서술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편집증적인 의심과 적대감 속에 자연스럽게 동참하도록 했다.

**주제어** 허목, 미수, 허미수, 허적, 짐승, 원귀, 환생, 변신, 부모, 편집증, 의심, 부모서사, 문학치료

## 1. 서론

“미운 일곱 살”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만 근래에는 “미운 다섯 살 죽이고 싶은 일곱 살”이라고 한다. 단순한 우스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부모가 자식과 관계를 잘 맺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 하겠다. 어디 어린 자식뿐이겠는가. 사춘기를 맞은 자식은 화약고와 같아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장성한 자식은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 자녀를 잘 양육해서 진정으로 독립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는 각 시기별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는 일이야 예로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것이니 설화에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문제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 있다고 해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는 이런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왜냐하면 이 작품에서는 자식이란 부모에게 원한을 갚으려고 환생한 존재이며 자식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온 가족이 패망한다고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보다는 훨씬 결속력이 강했던 가족 중심의 사회였기에 자녀의 실패를 부모의 실패와 직결시킨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만일 부모의 어떤 입장이 자식을 원한 품고 태어난 존재로 인식하게 하며 자식과 관계 맺는 방식을 결정짓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단지 특정 시대를 넘어 우리들과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과거의 의미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강진옥)은 이 작품을 변신담의 한 하위 유형 중에서 비인간계가 인간계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작품으로 보았다. 그것은 세계를 극복 불가능한 공포의 대상으로 보는 운명론과 보통 인간들의 한계를 이미 알고 있는 이인(異人)의 서로 다른 세계 인식이 공존한 결과 때문이라고 했다.<sup>2)</sup> 강진옥의 연구는 ‘변신’이라는 추상적 현상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개별 작품군들의 실상을 밝히려 했다는 점에서 무척 소중한 연구라 하겠다. 하지만 작품 속

1) 강진옥, 『변신설화에서의 정체확인파 그 의미』, 『진단학보』73, 1992, 165~185면; 강진옥, 『변신설화에 나타난 세계 인식 양상(2)-짐승 원귀 환생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문논집』 권10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학연구소, 1988. 327~349면.

2) 신동훈, 『전설과 민담에 담긴 좌절과 희망의 미학』, 『국문학연구』제5집, 국문학회, 2002.5, 7~28면. 강진옥의 논의는 조동일이 전설의 갈래적 특징으로 ‘세계에 대한 자아의 좌절감’을 든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전설의 그런 일반적인 서사적 특성보다는 신동훈이 이미 지적했던 바, 전설 각편이 실제의 현실 속에서 어떤 정서 내지 의미를 환기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밝히려는 것이다.

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구체적 인 문제와 관련이 되는 것인지, 또 이인 허목의 세계관은 운명론과는 달리 그 문제를 얼마만큼 잘 해결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의 관련 속에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한 신연우<sup>3)</sup>, 김태수<sup>4)</sup>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신연우, 김태수는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 소재 설화들을 연구하면서 관련 설화들 중 하나로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를 소개하고 있다. 두 논문에서는 주로 역사적 사건과 설화적 굴절에 대해 논의했는데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의 경우 숙종 6년(1680)에 허적(許積, 1610~1680)의 서자 허견(許堅, ?~1680)이 역모를 꾀했다는 이유로 남인(南人)이 대거 실각하게 된 경신환국(庚申換局)과 관련이 깊다고 했다. 이들 연구는 허목의 정치적 입장이나 당파 간의 갈등을 작품 속에서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허목의 삶에 대한 이해는 가능할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를 위한 소득은 적다. 우리들은 더 이상 남인(南人) 혹은 서인(西人)이라는 당파적 입장에 따라 살지는 않기 때문이다.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를 우리 삶과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에서 주목하는 서사의 본질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문학치료학에서는 모든 서사는 인간에 관한 것이며 인간은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라고 할 때 서사의 본질과 핵심 역시 인간관계(人間關係)에 있다고 보고 있다.<sup>5)</sup> 필자는 이미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3) 신연우, 『허목 <퇴조비 설화>연구』, 『구비문학연구』 제17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3. 12.31, 383~406면.

4) 김태수, 『설화에 나타나는 허목의 삶과 민중의식 -삼척지역에서 전승되는 설화를 중심으로』, 『강원민속학』vol20, 강원도민속학회, 75~111면.

5) 정운채, 『인간관계의 발달 과정에 따른 기초서사의 네 영역과 <구운몽> 분석 시론』,

알아본 허미수>에서 부모 자식 관계를 핵심으로 보고 원한 발생의 토대, 원한의 심각성, 원한의 해결 과정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에 대해 논의하였다.<sup>6)</sup> 그런데 이 논문은 제공된 텍스트의 내용을 따라 해석한 것으로 그런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는 심층적인 의도까지 충분히 고려하지는 못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의 기반이 되는 서사의 조직 원리 및 그 심리적 특징을 밝히려 한다. 이를 위해서 문학치료학의 ‘작품서사(作品敍事)’ 개념을 활용할 것이다. 작품서사는 제공된 텍스트를 넘어서서 구성해내야 하는 것으로 작품의 저변에서 작동하면서 최종적으로 작품이 그런 모습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다.<sup>7)</sup> 그런데 작품서사의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작품에 드러난 인물들 사이의 관계 즉, 인물구조를 파악해내는 일이 가장 핵심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의 서사를 진행해 나가는 핵심인물을 허미수와, 허미수의 사촌, 조카 세 사람으로 보았다. 또 이 세 사람은 삼촌과 아버지, 아들이라는 가족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삼촌의 의심과 조카의 역모로 인한 멸문지화를 새롭게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의 허미수

---

『문학치료연구』 제3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8.31, 7~36면.

6) 하은하, 『원수가 자식이 된 이야기의 이분양상과 문학치료적 의미』, 『문학치료연구』 제 3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 8, 111~136면.

7)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제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8.31, 247~278면, 문학치료학에서는 특정한 문학작품이 그런 모양새를 가지게 된 것은 그 저변에 ‘작품서사가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또 인생이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된 것 역시 인생의 내면에 ‘자기서사가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서 작품서사와 자기서사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기왕의 서사이론이 작품에서 출발한다면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은 텍스트에 실현된 것이 아니라 작품의 저변에 작용하고 있는 작품서사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담화(discourse) 차원보다는 줄거리 차원에 더 주목하며 장르나 매체를 넘어서서 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와 허미수의 사촌 그리고 조카 세 사람의 성격을 분석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물의 성격<sup>8)</sup>은 그 인물이 다른 인물과 관계를 맺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세 인물에 대한 폭넓고 입체적인 조망을 위해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와 동일한 인물구도를 지니면서 좀 더 삼촌의 입장과 가깝거나 혹은 조카의 입장과 가까운 작품 둘과 상호 비교할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의 결과를 토대로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는 세 인물 중 누구의 성격과 가장 닮아있으며 그런 성격적 특성은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시켜 나가며 그것은 어떤 이상심리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혀 보겠다.

## 2.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의 인물성격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줄거리로 진행된다.<sup>9)</sup>

- (1) 허미수의 사촌이 절에서 공부를 하다가 중들이 절의 평안을 위해 구렁이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는 요망한 동물이라며 구렁이를 죽여 버렸다.

8) 민경환, 『성격심리학』, 법문사, 2007.2.10, 4면. 성격심리학에서는 인지와 감정, 행동과 같은 정신신체적 체계들의 통합 양식이 곧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9)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에 해당하는 설화가 9편 가량 채록되어 있다.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2(설화편)』, 도서출판 문학과치료, 2009.8.30, 2462~2467면.

그 외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평민사, 1991에도 2편 가량 채록되어 있는데 각 편의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자귀하다>, 『한국구전설화』6, 369~372면; ② <허적과 이무기>, 『한국구전설화』7, 87~89면.

- (2) 허미수의 사촌이 구렁이를 태웠다. 그런데 파란 연기가 집 쪽으로 날아가는 것이었다. 허미수의 사촌은 그것을 보고 삼 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허미수의 사촌이 구렁이를 태웠는데 파란 연기가 집 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삼 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 (3) 삼 년 뒤에 집으로 돌아온 허미수의 사촌은 아들을 얻었다. 그러자 이인인 동생 허미수가 찾아와서 조카를 보고는 사람이 뺨의 형상을 타고 났으니 죽이라고 했다. 미수의 사촌은 허미수를 믿고 아들을 죽였다.
- (4) 그 다음에도 미수의 사촌은 아들을 얻었다. 그런데 허미수가 이번에도 잘못하면 허가(許家)가 멸족을 당하니 아이를 죽이라고 해서 두 번째 아들도 죽이고 말았다.
- (5) 세 번째에도 미수의 사촌이 아들을 얻었는데 미수가 여전히 시원치 않다고 죽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수의 사촌은 이번에는 그냥 기르겠다고 했다. 그러자 미수는 파적(波籍)을 하겠다고 그 후로는 왕래를 끊어 버렸다.
- (6) 허미수의 조카는 자라서 허적이라는 인물이 되었다. 허적은 나중에 영의정이 되자 불충지심이 커져서 역적이 되어 삼족을 멸하는 화를 당하고 말았다.
- (7) 그러나 허미수의 자손들은 파적(破籍)을 한 덕에 살아남게 되었다.
- (8) 결국 구렁이가 양값음을 한 것이었다.<sup>10)</sup>

10) 유정구(남, 71), <허적(許積)과 허목(許穆)>, 『한국구비문학대계』 1-6, 663~669면.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2(설화편)』, 도서출판 문학과치료, 2009.8.30, 2463~2464면에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 (1)허적의 아버지가 절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절은 중이 수 십 명이고, 부유했다. 그런데 차차 중이 없어져서 허적의 아버지가 무슨 영문이나고 물었다. (2)매월 십오 일이면 중이 하나씩 없어지는 일이 반복되자 절이 계속 퇴락했다. 절에 떡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거기다 하나 갖다 놓으면 이무기가 먹어 버리고 없어지고, 먹고 없어지고 했다. (3)허적의 아버지는 자신이 한번 지켜보겠다고 어느 날 그 짐승이 내려 오냐고 물어보았다. 매월 십오 일에 내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가서 지켜보았는데 눈이 벌겁고 대가리가 큰 놈이 떡 내려와서 사람 모양으로 만든 떡을 날름 삼키고 가는 것이었다. (4)허적의 아버지는 주

이 이야기의 대체적인 내용은 허미수의 사촌이 처음에는 이인인 허미

지 중에게 염려 말라고 하고 절의 대청마루를 한 칸 건너 한 칸을 뜯었다. 그리고 대청 후원에 잡아 놓은 대망(大蟒)을 마루 한 칸 건너 한 칸에 놓았다. (5)허적의 아버지가 관운장으로 팔십 근 청룡도 같은 칼을 만들었는데 그 칼로 이무기를 탁탁쳤다. (6)허적의 아버지가 이무기를 잡아서 보통 이무기가 아니니 불에 태우라고 했다. 그래서 중들이 장작을 갖다 놓고 수십 동이 되는 기름을 끼얹고, 이무기를 불에 태웠다. 이무기가 불에 타면서 과란 줄기가 올라왔는데 그 줄기가 허적의 아버지 집으로 뻗치는 것이었다. (8)허적의 아버지는 좋지 않은 징조라고 생각하고 삼년 동안 집에 가지를 앉았다. (9)허적의 아버지는 삼년 후에 절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에 가서 동품을 했는데 어린 아이를 하나 낳았다. (10)허적의 아버지와 허미수가 형제였는데 허미수는 이인(異人)이었다. 허적의 아버지가 동생인 허미수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했더니 동생은 뱀의 형상을 타고 태어났으니 죽어야 한다고 했다. 허적의 아버지는 아우의 예언을 믿고 아들을 죽였다. (11)허적의 아버지가 두 번째도 아들을 낳아 동생 허미수에게 말하니 동생은 잘못하면 허가(許家)가 멸족을 당하니 죽어야 한다고 했다. 허적의 아버지는 동생의 말을 믿고 들어가 아들을 또 죽였다. (12)세 번째 허적을 낳고, 허적의 아버지는 허미수에게 또 물었다. 허미수는 이번에도 시원치 않다고 죽어야겠다고 했다. 허적의 아버지는 셋째는 못 죽이겠다고 허미수에게 들어가 죽이라고 했는데 허미수는 자신이 어떻게 죽이냐며 그냥 두었다. (13)이 일이 있는 후에 허미수는 형제간에 과적(破籍)을 하고 자신은 허가가 아니라며 반드시 허적이 역적질 할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14)허적의 아버지가 아이를 죽이지 않고 그냥 두었는데 아이가 문일지십(聞一知十)이었다. 그래서 허적은 등과(登科)를 해서 영의정까지 지냈다. 그 때는 영의정은 지내야 역적질을 할 수 있었다. (15)허적의 아버지가 절에서 같이 동문수학(同門修學)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허적으로 인해 삼족(三族)이 멸할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다. 가만히 생각하니 안 되겠어서 허적의 아버지를 찾아가다. (16)이 친구가 허적의 아버지를 찾아가니 아들 허적이 영의정을 지내고 있었다. 허적의 아버지는 친구를 보고 반갑다며 진수성찬을 내왔다. 친구는 음식을 먹지 않고 과거에는 우리가 동문수학 하던 친구였지만 지금 허적의 아버지는 좋은 자리에 있다며 참 귀한 몸이니 산에서 가져온 특주를 한잔 마시라고 했다. (17)친구는 허적의 아버지에게 계속 술을 계속 권했는데 허적의 아버지는 자신의 집에 좋은 술이 많은데다 송진 같은 시커먼 술을 따라주니 친구에게 싫다고 거절을 해서 먹지 않았다. 친구는 혼자 마시겠다고 하고는 술을 마시는데 서너 잔을 먹다가 한잔을 상 바닥에 딱 떨어뜨렸다. (18)상을 치우던 문객(門客)이 시커먼 것이 무엇인지 한 방울 떨어진 걸 찍어 먹어봤다. 그런데 그 한 방울을 먹고서 깜빡 취했는데 일 년 앞에 희한하게 보였다. 허적이 삼족을 멸해서 연못을 파 뱀이 돼서 집안 식구를 죄 잡아먹는 것이 눈에 보였다. (19)문객은 여기 있다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는 집에 일이 있어 다녀오겠다고 하고 갔다. (20)일주일 사이에 역적으로 몰려 삼족을 멸하게 되었다. 허적이 연못을 파

수의 말에 동조했지만 나중에는 자식 셋을 죽일 수는 없다며 머뭇거리는 바람에 아들 허적의 역모에 연루되어 삼족을 멸하는 화를 당했다는 것과 반면 허미수는 파적(破籍)을 한 덕에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 내용에서 핵심이 되는 인물은 허적의 아버지와, 허적 그리고 허적을 의심한 삼촌 허미수이다. 그런데 이들의 성격은 얼핏 보면 아버지는 짓대 없고 삼촌은 결단력이 있으며, 아들인 허적은 집안의 문제야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평가는 너무 표면적인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짓대 없다고 보기에는 자식 셋 모두를 죽일 수 없다고 한 아버지의 심경이 매우 참담하게 느껴지며, 결단력이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조카를 죽이라는 삼촌의 요구가 너무 박절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의심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허적의 해명이나 입장, 본심에 대한 언급은 이 작품 어디에서도 선명하게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세 인물의 성격은 좀 더 입체적으로 조망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슷한 인물 구도를 지닌 서사들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버지와 삼촌의 성격은 <낮에 찢려 죽고 자식으로 태어난 구렁이>와 관련지어 생각할 때 짐작되는 바가 많다. 먼저 <낮에 찢려 죽고 자식으로 태어난 구렁이>의 줄거리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11)</sup>

- (1) 한 이인이 길을 가다가 어느 집 옆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집에 큰 사고가 날 예감이 들었다.
- (2) 이인은 집 주인을 만나서 이 집안에 멸문지화가 닥쳤다면 자신의 말을 믿고 따르면 화를 면할 수 있다고 했다.

---

서 죽은 집안사람들을 그 연못에 집어넣고는 뱀이 되어서 그 식구를 모두 잡아먹었다.

11)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낮에 찢려 죽고 자식으로 태어난 구렁이>에 해당하는 설화가 2편 가량 채록되어 있다.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1(설화편)』, 도서출판 문학과치료, 2009.8.30, 584~585면.

- (3) 주인이 사정을 하자 이인은 그 집 마당에 숯불을 피우게 하고는 구경하고 있던 주인 집 아들을 불에 던져버렸다.
- (4) 이인은 나중에 재를 헤치더니 부러진 낫 조각을 찾아내어 주인에게 보여주었다.
- (5) 주인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광으로 들어가서 부러진 낫을 찾아왔는데 이인이 내민 조각과 맞추어 보니 꼭 맞았다.
- (6) 주인이 예전에 자신의 못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던 구렁이를 낫으로 찢러 죽인 일을 생각해 내자 이인은 죽은 구렁이가 복수를 하기 위해 아들로 태어났다고 했다.
- (7) 이인은 이제 액을 다 막았다면서 다음에 태어나는 자식들은 잘 기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sup>12)</sup>

12) 이상진(남, 71), <허미수 대감의 사촌형 관상의 지혜>, 『한국구비문학대계』 2-9, 780-784면.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1(설화편)』, 도서출판 문학과학, 2009.8.30, 585면에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 (1)양천(陽川) 이씨에 미수 대감이 있었고 미수 대감의 사촌 형인 관산이 있었다. 그런데 미수 대감보다도 관산이 더 잘 알아 미수 대감이 사촌 형에게 많이 배웠다. (2)하루는 미수 대감이 관직에 들어가기 전에 사촌 형인 관산을 데리고 경상도에 갔다 왔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이 어느 동네 큰 기와집 앞에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3)사촌 형은 미수 대감에게 불일이 있으니 먼저 가라고 했다. 그래서 미수는 먼저 가고 관산은 큰 기와집으로 들어갔다. (4)관산은 삼십 칸이 되는 으리으리한 집에 들어가 주인을 불렀다. 관산은 주인을 만나 내일 당신네 집에 멸문지화가 닥칠 것이라고 했다. (5)주인이 관산에게 화를 피할 방도가 없냐고 묻자 관산은 자신의 말을 믿고 책임을 지킨다면 예방책을 내일 오시까지 넘겨주겠다고 했다. (6)이튿날 아침에 관산은 그 집 마당에 장작을 쌓아 놓고 성냥을 가져왔다. 그리고 하인들을 시켜 그 집의 일곱 살 먹은 외아들을 묶어 오라고 했다. (7)주인이 왜 자기 아들을 묶느냐며 못하겠다고 하자 관산은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주인은 관산의 말대로 아들을 묶어 장작개비에 올려놓고 불을 확 질러 버렸다. (8)그러자 아들이 살려 달라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9)아들이 불에 타서 재가 되자 관산이 하인들을 시켜 재를 헤집어 보라고 했다. 그러자 그 속에서 부러진 낫 조각이 나왔다. (10)관산은 주인을 불러 부러진 낫을 보여주며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냐고 물었다.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부러진 낫 조각을 들고 광으로 들어갔다. (11)주인이 광에다 버려두었던 낫을 들고 관산이 준 낫 조각을 대보니 딱 들어맞았다. 주인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전에 자신이 산에서 풀을 베다가 큰 뱀이 있기에 낫으로 찢은 일이 있었다. 그때 낫이 부러졌던 것인데 낫으로 찢었던 뱀이 그 집 아이로 태어

그러니까 <낮에 찢려 죽고 자식으로 태어난 구렁이>에서는 부모가 선견지명이 있는 이인의 말을 의심 없이 따랐기 때문에 구렁이가 환생한 자식의 복수를 막고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이인과 집주인과 주인집 아들의 관계는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에서 허미수와 허미수의 사촌과 허미수의 조카 허적의 관계와 같다. 이런 점에 착안하면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의 인물 성격은 <낮에 찢려 죽고 자식으로 태어난 구렁이>와의 관련 속에서 조망될 수 있다.

먼저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에 나타난 아버지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의 서사단락 (2)에서 허미수의 사촌이 구렁이를 태운 뒤 집 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삼 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낮에 찢려 죽고 자식으로 태어난 구렁이>의 서사단락 (6)에서 집주인이 예전에 자신의 못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던 구렁이를 낮으로 찢려 죽인 일을 생각해 낸 것과 상통한다. 물론 두 이야기 사이에는 사건을 경험한 직후와 경험 후 일정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구렁이를 태운 뒤 연기가 날아간 방향인 집으로 삼 년 동안 가지 않았거나, 조그만 단서에 과거의 행적을 참회하는 행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버지의 성격이 매우 소심하다는 점이다. 두 아버지는 모두 두 확신이나 자기 정당성이 부족하며 그로 인해 불안감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둘째,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의 서사단락 (3)에서 (5)

---

난 것이었다. (12)원래는 그날 오시에 아들이 뱀으로 변해 온 집안 식구들을 죽여 벌문지화를 일으키려고 했었다. 그런데 관산이 미리 알아보고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 것이다. (13)관산은 이제 이 집 액을 다 막았다며 주인에게 이후에 아들을 둘 얻을 테니 잘 키우라고 하고는 가버렸다.

사이의 변화 즉 아버지가 두 아이를 죽이는 것과 셋째까지 죽일 수는 없다고 하는 행동이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에서 아버지가 두 아이를 죽이는 것은 <낮에 찢려 죽고 자식으로 태어난 구렁이>의 서사단락 (3)에서 집주인이 이인의 말을 믿고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것과 상통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인은 지나가던 사람일 뿐이며 그가 이인이라는 사실은 입증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보다는 이인의 말을 믿는 다분히 비합리적인 행동을 보인다. 또 서사단락 (5)에 나타난 것처럼 아버지는 나중에 이인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근거까지 찾아낸다. 그것은 ‘멸문지화’라는 말이 아버지의 불안감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에서 미수의 사촌이 아이 둘을 죽인 것도 역시 멸문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 하겠다. 결국 이 행동으로부터 짐작되는 아버지의 성격은 자신의 두려움을 아이에게 투사시켜 아이를 구렁이로 만들고 그 결과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가족들을 죽일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에 주눅이 들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에서 허미수의 사촌은 두 아이를 죽인 이후에는 셋째는 더 이상 죽일 수 없다며 머뭇거린다. 셋까지는 부정(父情)으로서 차마 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이르러서야 허미수의 사촌은 아버지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자신의 위치와 입장을 자각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셋째를 살리겠다고 마음을 내는 아버지의 태도는 일관성이 없고, 우유부단하며 줯대가 없다 기보다는 예전의 모습들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하겠다.

다음으로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에서 허미수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의 서사

단락 (3)에서 (5)사이에 걸쳐서까지 거둬 조카를 죽이라고 하는 허미수의 요구와, 사촌이 그 요구를 거절하자 허미수가 파적(破籍)을 하고 왕래를 끊어버린 행동에 담긴 의미를 짐작해야만 한다. 이것은 <낮에 찢려 죽고 자식으로 태어난 구렁이>의 서사단락 (3)에서 이인이 장작을 피운 뒤 다 짜고짜 구경하고 있던 주인 집 아이를 불에 던져 태운 것과 닮아 있다. 이인의 행동은 따지고 보면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집안의 일에 주체롭게 관여한 것이 될 수도 있다. 아이가 죽게 되면 이인에게 돌아올 이득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도 않다. 십분 양보해서 이인이 집주인과 가문을 넘어 서서 두 사람이 모두 같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들이 보호하려 한 것은 아마도 이인과 집주인이 속해 있는 체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인은 닥쳐올 화를 예방하기 위해 아이를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직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아이를 죽인 것이다. 이런 문제는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에서도 고스란히 되풀이되고 있다. 허미수는 막 태어난 조카를 죽이라고 한다. 그것은 아이의 운명이 허미수가 예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현될 수도 있다는 점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 독단적인 판단이라 하겠다. 또 허미수는 막연하게 허가(許家)의 멸족을 염려한다고 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걱정한 것이 가문인지도 의심스럽다. 예로 허미수가 진심으로 가족을 위했다면 그는 사촌이 부자(父子)의 정리 때문에 계속해서 자식을 죽일 수는 없다는 것을 예상했어야만 한다. 또 사촌이 자식을 죽일 수 없다고 할 때에 가문을 보존할 대책을 강구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허미수는 그렇게 하기는커녕 사촌이 자신의 판단을 더 이상 충실하게 따르지 않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른 고을 허가로 갈라서서 왕래를 끊어버린다. 이와 같은 허미수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허미수가 보호하려 한 것은 가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체제이며 더불어 체제에 대한 자신의 결백이라 하겠다. 따라서 허미수의 이인

성이란 실상은 자기중심적이고 독단적이며, 체제 지향적이어서 역모와 관련해서는 자식까지도 죽이라고 강요할 만큼 냉혹한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의 주요 두 인물인 아버지와, 삼촌 허미수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략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 아들에 대한 것이다. 아들에 대해서는 각편에서 자라서는 높은 벼슬을 많이 지냈고 용력도 있었다거나<sup>13)</sup>, 죽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총명하였다거나<sup>14)</sup> 장안에서 말을 타고

13) 김진홍(남, 58), <뱀의 정기를 타고 태어난 허적>, 『한국구비문학대계』 2-8, 509~512면,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2(설화편)』, 도서출판 문학과치료, 2009.8.30, 2464면에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 (1)미수 선생에게는 사촌이 있었는데 그 사촌의 자제가 허적이었다. (2)미수 선생의 사촌은 요물이 나와 도입한 원을 죽이는 마을에 자청해서 부임했다. (3)미수의 사촌은 마룻장을 하나 건너서 빼 놓고 장검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4)한밤중이 되자 음산한 바람과 함께 기둥 굴기의 큰 뱀이 들어왔다. 미수의 사촌이 빠진 마룻장과 온전한 마룻장 사이로 몸을 피하자 뱀도 따라 움직였다. 그런데 뱀은 그 마룻장에 몸이 영켜버렸다. 미수 선생의 사촌은 칼을 들로 뱀을 동강 내어 죽였다. (5)이튿날 미수의 사촌은 뱀을 태운 뒤 백성들이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 (6)그런데 뱀의 혼이 남아 있었다. (7)미수의 사촌 부인이 태기가 있어 기골이 장대한 옥동자를 낳았다. (8)미수 선생이 아이를 한 번 보더니 뱀의 정기로 원한을 품고 원수를 갚으려 태어난 것이라며 아이를 죽이는 일은 박절하긴 하나 이 아이가 크면 우리 집안이 큰 화를 당할 것이니 죽이라고 했다. 사촌은 미수 선생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아들을 어떻게 죽이느냐며 못 죽인다고 했다. 그래서 미수 선생은 파보(派譜)를 했다. (9)허적은 자라서 높은 벼슬을 많이 지내고 용력도 있고 하니 불충지심(不忠之心)이 들어 난리를 일으켰다. 그러나 성공을 못해 그만 죽게 되었다. (10)집안에 역적이 나서 삼족을 멸하게 되었지만 파보를 한 미수 선생은 무사했다.

14) 이종기(남, 77), <허미수 전설>, 『한국구비문학대계』 8-14, 472-475면,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2(설화편)』, 도서출판 문학과치료, 2009.8.30, 2465면에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 (1)과거에 허미수(許眉叟) 선생 사촌이 절에 공부를 하러 가니 중들이 다 절을 나오고 있었다. 허미수 사촌이 이유를 묻자 큰 구렁이가 부처를 감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나가서 절을 비우고 온다고 했다. (2)미수 선생 사촌이 칼로 구렁이를 죽이고 치우자, 구렁이 원귀(冤鬼)가 그 날 저녁 미수 선생 사촌의 처에게 들어가 자식으로 났다. (3)미수 선생이 허견(許堅)이라는 사촌 아들을 보니 원수 갚을 상이라 역적이 될 것이라서 사촌에게 저 아이를 죽여야 한다고 말했다. (4)그러나

달리면 허미수의 눈에는 뱀의 혀가 날름거리는 것으로 보였다는<sup>15)</sup> 정도의 설명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일 뿐 정작 허적의 본심과 의도를 짐작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들 허적의 성격은 <아기장수>와의 관련 속에서 생각하게 되면 폭넓은 이해가 가능해진다. 먼저 <아기장수>의 줄거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16)</sup>

---

미수 선생 사촌은 아이가 너무나도 총명하여 죽이지를 못했다. (5)하루는 미수 선생과 사촌, 허견이 함께 화원 구경을 갔다가 미수 선생이 허견의 구멍이 꼬리 쪽의 그림자를 밟고는 저쪽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니 꼼짝하지 못했다. 미수 선생이 이것을 보고도 허견을 죽이지 못하겠느냐고 사촌에게 이야기 했으나 죽이지 못했다. (6) 미수 선생은 나라에 상소까지 해 우리 집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 죽여주십사 해도 믿지 않았다. (7)미수 선생이 죽으면서 사촌에게 유서를 준 후 자신을 장사할 때는 적두팔 서 말을 같이 문으라고 한다. (8)결국 허견은 역적이 되어 집안사람들의 묘를 전부 파려고 하는데 허미수의 묘를 파려 하니 별 수 천 마리가 나와서 당해낼 수가 없었다. (9)자식이 역적이 되니 허견의 아버지도 다 죽게 되었다. 임금에게 미수 선생의 유서를 바치니 “유자여견(有子如犬), 자식이 개 같은 사람이 있으니, 죄당만사(罪當萬死), 만 번 죽어도 죄가 마땅하다.”고 쓰여 있었다. (10)그의 유서로 인해 그의 사촌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미수 선생의 묘도 해치지 않을 수 있었다.

15) 배석영(남, 73), <뱀의 정기를 타고난 허적(許積)>, 『한국구비문학대계』 3-4, 307-309면,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2(설화편)』, 도서출판 문학과치료, 2009.8.30, 2464면에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 (1)예전에 허미수(許眉叟)와 허적의 아버지가 한 서당에서 같이 공부를 했다. (2)그런데 서당에서 밤에 사람들이 잠을 자면 다락에 있던 큰 뱀이 내려와 꼬리로 아랫도리를 들여다본다는 것이었다. (3)예전의 대인(大人)들은 신중해서 경거망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허적의 아버지는 칼을 준비하고 있다가 뱀의 꼬리를 찢어서 뱀이 허적의 아버지 손에 점 하나를 남기고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것을 본 허미수는 건방진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4)그 후로 허적이 태어났는데 허적이 장안에서 말을 타고 달리면 허미수 눈에는 뱀의 혀가 날름거리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16)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아기장수>에 해당하는 설화가 83편 가량 채록되어 있다.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2(설화편)』, 도서출판 문학과치료, 2009.8.30, 1971~1993면.

- (1)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열한 살이 되도록 말도 못하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여자가 늘 업고 다녔다.
- (2) 어느 여름, 한 남자가 모를 심는 여자에게 찾아와 하루 종일 심은 모가 몇 포기냐고 물었다. 여자가 대답을 못 했는데 등에 업혀 있던 아이가 그럴 때는 오늘 하루 종일 몇 걸음이나 걸었냐고 물으면 된다고 했다.
- (3) 어머니가 아이를 칭찬했는데 아이는 방금 온 남자는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라며 어머니에게 이웃집에 가서 팔과 조 서 말을 구해오라고 했다.
- (4) 아이는 어머니에게 남자가 다시 찾아오면 자신이 간 곳을 말하지 말라는 당부를 남기고 집을 떠났다.
- (5) 잠시 후 남자의 일행이 들이닥쳐서 아이가 숨은 곳을 말하라며 어머니를 위협했다.
- (6) 어머니는 남자의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아이가 간 곳을 말했는데 남자가 바위 아래로 올라갔더니 팔은 말로 변하고 조는 장수로 변해서 아이가 말에 올라타려는 순간이었다.
- (7) 결국 장수가 되려던 아이의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다.<sup>17)</sup>

---

17) 제훈이(여, 64), <아기 장수>, 『한국구비문학대계』 8-9, 716-719면,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2(설화편)』, 도서출판 문학과치료, 2009.8.30, 1973면에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 (1)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열한 살이 되도록 말도 못하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서 여자가 항상 업고 다녔다. (2)어느 여름, 여자가 모를 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하루 종일 심은 모가 몇 포기냐고 물었다. 여자가 대답을 못하자 그 사람은 떠났다. 그때 등에 업혀 있던 아이가 그럴 때는 오늘 하루 종일 몇 걸음이나 걸었냐고 되물으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3)엄마는 아이를 기특하게 생각하고 칭찬을 했다. 그러자 아이는 방금 그 사람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이었다며, 열른 장부자 집과 최부자 집에 가서 팔 서 말과 잔조 서 말을 받아 오라고 했다. (4)엄마가 팔과 조를 준비해오자, 아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테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딱 잡아떼라고 했다. 엄마는 알았다면서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물었다. 아이는 알려주지 않으려다가 엄마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저 앞산 바위 아래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아이는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비밀을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떠났다. (5)잠시 후 사람들이 들이닥쳐 아이가 숨어있는 위치를 말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위협하자, 엄마는 사실을 털어 놓고 말했다. (6)한편 바위 아래는 팔은 말로 변하고 조는

이상과 같이 전개되는 <아기장수>의 줄거리는 얼핏 보아서는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의 내용과는 상당히 달라 보인다. 하지만 <아기장수>에서도 줄거리의 전개를 이끌어 가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은 셋이다. 곧 어머니와 아기장수와 아기장수를 잡으러 온 남자이다. 이들 세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기장수와 어머니는 부모 자식관계이고, 남자는 아기장수를 의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에서 허미수의 사촌과 그의 아들 허적 그리고 허적을 의심한 허미수에 상응한다. 허미수가 그의 조카를 의심하고 죽이려했던 것처럼 <아기장수>에서 남자는 아기장수에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며 죽이려고 한다. 또 허미수가 조카를 제거할 것을 사촌에게 독촉한 것처럼 <아기장수>에서도 남자는 아기장수를 죽이기 위해 아기장수의 어머니를 위협했다. 물론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에서는 아버지였지만 <아기장수>에서는 어머니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부모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니까 아기장수를 방해하려 한 남자는 허미수의 다른 모습이며, 아기장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어머니는 허미수 사촌의 다른 모습임에 틀림없다. 또 역모로 죽은 허미수의 조카는 아기장수의 다른 모습인 셈이다.

이제 허미수 조카의 성격에 관해 짐작해 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죽일 수 없을 만큼 총명했다거나 말을 타고 달리면 허미수의 눈에는 뱀의 혀가 날름거리는 것으로 보였다는 서로 상반된 평가부터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아기장수>의 서사단락 (1)에서 (3)까지에 나타난 것처럼 열한 살이 되도록 말 한마디도 못하고 걸음도 제대로 걷지

---

장수로 변해, 아이가 말에 올라타려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바위를 파헤쳤다. (7)만일 아이가 말에 다리를 다 올렸으면 장수가 되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해 결국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못하던 아들이 남자의 어려운 질문에 척척 답하는 것을 두고 어머니와 남자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과 유사하다. 아기장수의 어머니는 어른의 난감한 질문에도 위축되지 않고 답을 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아이를 잡으러 온 남자에게 그 모습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것은 아이의 성격과 능력이라는 것은 정해진 바가 없고 상대방의 마음에 따라 용납되기도 혹은 용납될 수 없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허미수의 눈에 그의 조카가 말을 타고 달리면 뱀의 혀가 날름거리는 것으로 보였다는<sup>18)</sup> 것은 용납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아이의 비범함은 도리어 이질감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역모를 일으킨 허미수 조카의 심정이나 성격은 <아기장수>에 나타난 아기장수가 역모를 준비한 심정이나 성격으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다. <아기장수>는 수많은 각편들이 있다. 각편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아기장수는 나라에서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하고 있다. 예로 말을 준비하거나 군사를 기르는 등의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 아기장수가 나라에서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위상을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또 군사와 말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역시 아기장수가 자기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19)</sup> 이로 미루어 볼 때 <원한 품고 태어나 조카 알아본 허미수>에서 허미수의 조카 허적의 심정이나 성격은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용력(勇

18) 배석영(남, 73), <뱀의 정기를 타고난 허적(許積)>, 『한국고전문학대계』 3-4, 307~309면,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2(설화편)』, 도서출판 문학치료, 2009.8.30, 2467면

19) 신동훈, 『아기장수 설화와 진인출현설의 관계』, 『고전문학연구』vol5,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0, 103~127면. 이 논문에서는 <아기장수>는 장수의 좌절을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의 성공에 대한 기대를 내포한 이야기라고 했다.

力)이 있어 불충(不忠)했다거나, 아버지에게 원한을 갚으려고 불효(不孝)한 나쁜 놈일 수만은 없다. 그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 아래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편안한 여생을 보내기보다는 자신의 세계를 열어보겠다는 자의식이 강한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에게는 도전이며 위협이고 규범에서 어긋나는 행동이지만 아이가 먹은 마음 그 자체가 악(惡)이라고 규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이의 성공 여부는 아이가 먹고 있는 마음의 진정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허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는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의 각편에서도 확인된다. 예로 “허미수의 조카는 열여섯 살에 장안을 뒤흔들 정도였고 열여덟 살에는 좌의정이 되어서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했는데 조정의 신하들이 역적이 될 것이라며 염려하여 결국 함께 모의하고 일을 꾸며 역적으로 몰아버렸다고 한다.”<sup>20)</sup>는 것은 허적이 불충했거나

---

20) 박동준(남, 73), <허미수 형제와 뱀의 혼령>, 『한국구비문학대계』 7-2, 52-57면,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2(설화편)』, 도서출판 문학과치료, 2009.8.30, 2465~2466면에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 (1)허미수의 형이 고을 원님으로 가는데, 허미수가 따라 갔다. (2)하루는 허원님에게 아전이 오더니 고을의 풍습으로 산속의 어느 동굴에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허미수의 형이 동굴의 그것은 필시 짐승일 것이라면서 그 놈을 잡겠다고 했다. (3)그래서 허원님이 긴 장대에 제비를 미끼로 붙여서 동굴에 밀어 넣었다. 그러니까 짐채 만한 구렁이가 나오는 것이었다. 허원님은 그 구렁이를 미리 준비해둔 기름 가마에 넣어 죽였다. (4)그렇게 구렁이를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원님과 허미수의 가마 뒤로 구렁이 혼령이 따라 갔다. 구렁이 혼령은 허원님의 집까지 따라 왔다. (5)수상한 기미를 알아챈 허미수가 형에게 오늘은 자신과 함께 잠을 잘 것을 청했다. 그리고 형에게 앞으로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는 칠일 만에 죽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6)그 뒤 열 달 만에 허원님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이가 아주 훗칠하였다. 그러니까 허미수의 형은 아들을 못 죽인다고 했다. (7)허미수가 아이의 엉덩이의 꼬리 부분을 발로 밟으면서 죽이자고 했으나, 형은 반대했다. (8)허미수는 아이를 밧줄에 집어 던졌는데,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번쩍 일어났다. 그러나 형은 죽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9)허미수는 그렇다면 형제간의 파를 가르자고 하여 호적을 파고 나갔다. (10)훗날 허미수 형의 아들은 열여섯 살에 장안을 뒤 흔들며 열여덟 살에는 좌의정이 되어서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

불효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문제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신하들이 그를 역신(逆臣)으로 만들어 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기장수>와의 비교를 통해 짐작한 허적의 성격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의 핵심적인 세 인물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성격은 <낮에 찢려 죽고 자식으로 태어난 구렁이>와 비교해 볼 때 소심하며 자기 확신과 자기 정당성이 미약해서 불안감이 높다. 또 멸문지화에 대한 공포심이 강해서 세상에 주눅이 들어 있지만 아버지의 정으로 자식을 보호하려고 자신을 변화시키려 애쓰는 인물이었다. 둘째, 허미수의 성격은 이인이라고 평가되었지만 그 실상은 자기중심적이고 독단적이며, 체제 지향적이어서 역모와 관련해서는 자식까지도 죽이라고 강요할 만큼 냉혹한 것이었다. 셋째, 아들 허적의 성격은 <아기장수>와의 관련 속에서 짐작해 볼 때 자신의 능력이나 위상에 대한 자의식이 강하고, 편안하게 살기보다는 자신의 세계를 열어가려 하는 도전적인 성향으로 규범에 굴하지 않는 성격이라 하겠다.

2장에서는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에 등장하는 주요 세 인물의 성격에 대해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그것은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에서 변신, 구렁이와 환생이라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을 때 가능했다. 그러면 자식이 구렁이가 원한을 품고 환생한

---

었다. 그것을 본 허미수의 형은 아들이 훌륭하다고 좋다고 했다. (11)그러나 허미수의 형의 아들이 역적이 될 것이라고 염려한 조정의 신하들은 허미수의 형의 아들을 없애려고 공모했다. (12)그래서 장안의 차일(遮日)을 모두 없애고, 어전의 차일만 남겨 두었다. (13)허미수 형의 아들은 장안에 차일이 없으니까 함부로 어전의 차일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역적으로 몰려서 멸문지화를 당했다. (14)그래서 허적 일족은 허미수의 자손 밖에 남지 않았다.

것이라며 자식을 죽이려는 삼촌의 요구는 자식의 정체가 의심스럽다는 판단이며, 아버지의 머뭇거림은 부정(父情)으로 인한 망설임이라는 상황도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었다.

이제 3장에서는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에서 삼촌, 아버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어떤 이상심리 성향과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 3.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와 편집증적 부모서사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에서 서사의 주체는 아버지와 삼촌이다. 그 두 사람은 아들 또는 조카인 허적의 정체에 대해 의심하고 그 의심을 풀기도 하지만 영원히 의심을 풀지 못하고 관계를 끊기도 했다. 인생과 문학작품이 '서사(敍事)'를 매개로 하여 같은 방식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보는 문학치료학<sup>21)</sup>에서는 인간관계의 주체가 부모의 입장에 있으면서 '나'와 '세상' 가운데 '나'에 초점을 맞추고 '법칙'과 '소망' 가운데 '법칙'에 초점을 맞추며 서사의 주안점이 양육(養育)에 있는 서사를 부모서사<sup>22)</sup>라고 한다. 이런 구도에서 보면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

21)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 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8.31, 247~278면. 문학치료학에서는 문학작품이나 인생의 저변에 작동하고 있는 서사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품으로 보여 지는 작품의 저변에는 '작품서사'가 있고, 같은 방식으로 인생의 내면에는 '자기서사' 있어 그것이 인생으로 구현된다고 본다.

22) 정운채, 『인간관계의 발달 과정에 따른 기초서사의 네 영역과 <구운몽> 분석 시론』, 『문학치료연구』 제 3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8.31, 7~36면. 문학치료학에서는 서사(敍事)의 본질과 핵심은 인간관계(人間關係)에 있으며 서사란 인간관계의 형성과

수>는 부모서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에서는 두 사람의 부모 입장이 나오고 있다. 한 경우는 허미수로 자신의 법칙에 따라 조카를 의심하고 자신이 속한 체제 유지를 위해 조카와의 관계를 끊어 버린다. 나머지 하나는 허미수 사촌의 경우처럼 처음에는 자식을 의심했지만 결국에는 의심을 거두는 것이다. 그런데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에서는 결과적으로 부모 자식과 관계 맺는 두 가지 방식 중 조카를 밀쳐 버린 허미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다. 이것은 허미수의 판단에 동조하지 않은 사촌은 결국 멸문지화를 당했지만 허미수는 화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진행에서도 확인된다. 그것은 허미수의 사촌과 같은 태도는 부모로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이며 동시에 허미수의 사촌에게 허미수와 같아지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낮에 찢려 죽고 자식으로 태어난 구렁이>의 아버지처럼 이인의 말만 믿고 자식에 대해서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늦추지 말 것이며 조금이라도 불안한 구석이 포착되면 자녀를 밀쳐내는 것이 능사라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허미수의 성격에 입각하여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허미수>는 자녀를 극단적으로 두려워하고 자녀의 입장이나 성장 가능성, 자녀가 나와 다르긴 하지만 나보다 나은 존재일

---

위기와 회복에 대한 서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인간관계는 매우 복잡하지만 그 근저에는 가족관계가 있고 나머지 관계들은 가족관계의 파생 형태, 복사 형태, 동중계통의 다른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필연적인 인간관계의 발달 과정에 따라 서사 역시 아들 또는 딸로서 맺게 되는 자녀서사와, 남자 또는 여자로서 맺게 되는 남녀서사와, 남편 또는 아내로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인 부부서사와,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서 맺게 되는 부모서사 네 가지로 범주화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네 영역의 인간관계는 출생, 성별, 결혼, 출산 등의 계기들이 필수적인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보다는 인간관계를 운영하는 주체가 어떤 입장이며 그 관계에서 주안점이 되는 핵심 문제가 순응, 선택, 지속, 양육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따라서 구분된다.

수도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기존 가치에 따라 자녀를 밀쳐 내는 부모서사<sup>23)</sup>라 하겠다.

실제 삶에서 우리들은 위에서 정리한, 허미수와 같은 부모서사를 지향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들은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를 읽으면서는 허미수의 잔혹함, 구렁이의 비범함, 아버지의 참담함을 한 눈에 알아채지 못한다. 그것은 허미수라는 존재가 이야기 처음서부터 이 인으로 전제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허적 아버지의 머뭇거림 외에는 이야기 내부의 어떤 인물도 허미수의 판단이 오해나 착각이라고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야기 속에서는 도리어 허미수 사촌의 머뭇거림이 잘못이었음이 입증되기도 한다. 그 외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로는 서사 속의 주체인 부모의 의혹이 병적일 만큼 치밀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제 서사의 진행을 처음부터 찬찬히 따라가면서 서사적 논리의 모순 점과 편집증적 특성<sup>24)</sup>과의 관련에 대해 밝혀 보겠다.<sup>25)</sup>

첫째,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에서는 단순히 선후 관계에 있는 두 가지 사건을 인과관계로 보는 오류가 있다. 이것은 충분한

---

23) 문학치료학에서는 서사의 주체가 대상과의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 가르기서사, 밀치기서사, 되찾기서사, 감싸기서사로 나누는데 서사의 주체가 부모의 입장에서 대상과의 관계를 운영하는 방식이 대상의 정체를 ‘의심’하고 기존 가치에 대한 ‘추구’의 태도를 견지하는 서사를 자녀밀치기서사라고 한다.

24) 권석만, 『현대이상심리학』, 학지사, 2003.8, 1~660면. 편집증은 미국정신의학회에서 네 번째로 개정하여 발표한 정신장애의 분류체계인 DSM-IV(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ition)에 의하면 A군 성격장애 중 하나로 타인에 대한 강한 불신과 의심을 지니고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성격특성을 말하며 편집증 성격장애라고도 한다.

25) 정운채, 『편집성 성격장애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접근』, 『고전문학과 교육』제 1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8. 179~204면. 정운채는 편집증을 인간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대상에 대한 의혹의 시선과 기존 가치에 대한 추구의 태도가 결합된 밀치기서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했다.

근거가 없음에도 앞의 사건을 뒤 사건의 원인으로 보는 것으로서 허미수의 사촌이 아들 허적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해당되는 내용을 인용해 보겠다.

(1)허적의 아버지가 절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절은 중이 수 십 명이고, 부유했다. 그런데 차차 중이 없어져서 허적의 아버지가 무슨 영문이냐고 물었다. (2)매월 십오 일이면 중이 하나씩 없어지는 일이 반복되자 절이 계속 퇴락했다. 절에 떡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거기다 하나 갖다 놓으면 이무기가 먹어 버리고 없어지고, 먹고 없어지고 했다. (3)허적의 아버지는 자신이 한번 지켜보겠다고 어느 날 그 짐승이 내려 오냐고 물어보았다. 매월 십오 일에 내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가서 지켜보았는데 눈이 별경고 대가리가 큰 놈이 떡 내려와서 사람 모양으로 만든 떡을 날름 삼키고 가는 것이었다. (4)허적의 아버지는 주지 중에게 염려 말라고 하고 절의 대청마루를 한 칸 건너 한 칸을 뜯었다. 그리고 대청 후원에 잡아 놓은 대망(大蟒)을 마루 한 칸 건너 한 칸에 놓았다. (5)허적의 아버지가 관운장으로 팔십 근 청룡도 같은 칼을 만들었는데 그 칼로 이무기를 탁탁쳤다. (6)허적의 아버지가 이무기를 잡아서 보통 이무기가 아니니 불에 태우라고 했다. 그래서 중들이 장작을 갖다 놓고 수십 동이 되는 기름을 끼얹고, 이무기를 불에 태웠다. 이무기가 불에 타면서 파란 줄기가 올라왔는데 그 줄기가 허적의 아버지 집으로 뻗치는 것이었다. (8)허적의 아버지는 좋지 않은 징조라고 생각하고 삼년 동안 집에 가지를 앉았다. (9)허적의 아버지는 삼년 후에 절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에 가서 동품을 했는데 어린 아이를 하나 낳았다. (10)허적의 아버지와 허미수가 형제였는데 허미수는 이인(異人)이었다. 허적의 아버지가 동생인 허미수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했더니 동생은 뱀의 형상을 타고 태어났으니 죽어야 한다고 했다. 허적의 아버지는 아우의 예언을 믿고 아들을 죽였다.<sup>26)</sup>

26) 유정구(남, 71), <허적(許積)과 허목(許穆)>, 앞의 책.

위 인용문에서 허미수의 사촌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구렁이를 죽인 뒤에 아들을 얻게 된다. 그러자 구렁이의 원혼이 남아서 아들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렁이를 죽였는데 그 뒤에 우연히 아들을 얻을 수는 있지만 아들을 얻으려면 구렁이를 죽이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이야기에서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구렁이의 원혼이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믿는다. 제사 받아먹는 구렁이를 죽이는 이야기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구렁이 귀신이 복수하려 하자 다른 귀신이 구렁이를 퇴치한 사람을 도와주는 <뱀 신 없앤 원님과 죽은 뱀의 복수><sup>27)</sup>와 같은 이야기로 진행될 수도 있다. 또는 신선이 되어 간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구렁이 뱀이 되어 사라지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마을의 폐해를 없애주는 <신선바위와 구렁이><sup>28)</sup>에서처럼

27)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뱀 신 없앤 원님과 죽은 뱀의 복수>에 해당하는 설화가 8편 가량 채록되어 있다.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2(설화편)』, 도서출판 문학과학, 2009. 8. 30, 1201~1205면. 그 중 한편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안용인(남, 74), <기건 목사>, 『한국구비문학대계』, 9-1, 206-208면. (1)기건목사가 제주도에 부임하여 골총(古塚)을 다 수리하고, 당 오백과 절 오백을 모두 부숴 버렸다. (2)기건목사가 임기를 끝내고 화북동의 포구에서 풍선(風船)을 타려고 했다. 그런데 당 귀신, 절 귀신들이 나타나 복수를 하는 바람에 역풍이 불어 몇 달 동안 다른 곳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3)그러자 골총 귀신들이 나타나 기건 목사에게 아무 날 아무 시에 대기해 있다가 배를 띄우라고 일러주었다. (4)기건 목사가 골총 귀신들이 알려준 날 배를 띄우고 진도의 벽파진까지 들어갔는데 당 귀신들이 쫓아왔다. 그러나 기건 목사가 이미 육지에 당도한 뒤라 귀신들이 모두 돌아가 버렸다.

28)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신선바위와 구렁이>에 해당하는 설화가 6편 가량 채록되어 있다.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2(설화편)』, 도서출판 문학과학, 2009. 8. 30, 1928~1930면. 그 중 한편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흥태(남, 69), <미신을 밝힌 명관>, 『한국구비문학대계』, 7-10, 131-133면. (1)어떤 절에 삼월 보름이면 중이 신선이 되어 간다는 풍습이 있었다. 그 풍습에 의하면 신선이 되어 갈 노승을 바위 위에 앉히면 안개가 가득하다가 깨면서 노승이 사라지는 것이다. (2)그때 그 고을에 원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중이 신선이 되어 간다는 풍습을 알고 올해도 신선이 되어 가는 중이 있나고 물었다. 신하가 그렇다고 하자 원은 봉투를 하나 주면서 신선이 되어 갈 중에게 주라고 했다. 그리고 나중에 썩는 냄새가 나면 자신에게 말하라고 했다.

불안감 따위는 찾아 볼 수도 없는 이야기로 끝이 날 수도 있다. 그런데도 굳이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에서는 서사를 더 진행시키 되 구렁이를 죽인 사건과 아이를 얻게 되는 것을 인과관계로 만들며 불안해한다. 이것은 아이의 탄생 자체를 자신에 대한 위협 가능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 근거 없이 타인이 자신에게 해를 주거나 속인다고 의심하는 편집증의 성격적 특성<sup>29)</sup>과 유사하다.

둘째,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에서는 현실 자체를 왜곡하지는 않지만 그 중요성을 왜곡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허미수의 조카가 영민했다는 점, 그리고 높은 지위에 이르렀다는 점, 역모를 일으켰다는 점, 그리고 실패하여 삼족이 멸하는 벌을 받게 되었다는 점과 같은 것은 현실적인 서사 내용이다. 그것들이 현실적이라는 것은 구렁이를 죽이자 상서롭지 못한 연기가 집 쪽으로 향해 날아갔다거나, 아이를 낳았는데 뱀의 형상이었다는 것과는 달리 언제나 우리 현실에서 있을 법하고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명확한 논리적 모순이 있다. 그것은 바로 ‘중요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로 조카의 뛰어난 재주나 높은 지위는 역모를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한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조카의 지위나 재주가 곧 역모를 일으킬 단서로 부각되는 것은 다분히 중요성이 왜곡된 지나친 의심이라 하겠다. 또 허미수의 조카가 역모를 일으켰지만 실패했다는 것에서도 중요성이 왜곡되는 현상은 반복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실패한 역모들은 치밀

---

(3)가을이 되어 절 뒷산에 썩는 뱀새가 진동을 하자 그 산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굴속에 구렁이가 중을 삼킨 채 죽어 있는 것이었다. (4)알고 보니 중이 신선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구렁이에게 잡혀 먹힌 것이다. 그런데 그 해에는 원이 준 독약이 든 봉투 덕에 구렁이가 죽은 것이었다. (5)그 이후로 그 절에 구렁이에게 잡혀 먹히는 폐해가 사라졌다.

29) 권석만, 앞의 책.

하지 못한 계획이나, 부적절한 시기 선택 혹은 배반 등이 그 실패의 본질적인 원인이라 하겠다. 그런데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에서는 자식이 원한 때문에 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 역모에 실패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현실검증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중요성을 왜곡하고 타인의 말이나 사건 속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하는 편집증의 성격적 특성<sup>30)</sup>과 맥을 같이 한다.

셋째,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에서는 아들이 구렁이의 환생이라는 점에서부터 이야기가 출발한다. 그리고 일부러 역모를 일으키고 실패하여 가문을 멸절시켰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맺음으로써 이들은 항상 공격자가 되고 아버지는 외부 공격자에게 피해 입고 희생당하는 존재라는 인상을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이어가고 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결국 모두 자녀인 허적을 불신하게 하며, 허적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우리들을 이끄는 서술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선후 관계의 사건을 인과관계로 설정하거나, 현실의 중요성을 왜곡하여 자녀를 공격자로, 아버지를 희생자로 만들고 있는 것은 충분한 근거 없이 타인이 자신에게 해를 주거나 속인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타인의 말이나 사건 속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하는 등 대상에게 모든 악한 것을 투사하여 타인에게 강한 불신과 의심을 지니면서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편집증적인 사고방식과 유사한 것이라 하겠다.<sup>31)</sup>

이렇게 해서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에서는 이야기 내부에 편집증적인 인물을 등장시키지 않고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30) Glen O. Gabbard, 이정태·채영래역, 『역동정신의학』, 하나출판사, 1996.4.15, 28~606면.

31) 권석만, 앞의 책.

의심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켜서 자녀인 허적을 의심하고 적대시하는 편 집증적 부모서사에 동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밀고 간다면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에 특별히 몰입하거나 고착되는 정도에 따라 우리들은 우리의 부모서사와 편집증 간의 거리를 가늠해 보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 4. 결론

이 논문은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가 우리 삶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작품 속에서 이인이라고 평가받는 허미수의 처신은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해결하고 있는지를 살펴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변신, 짐승 원귀, 환생이라는 화소들이나 전설의 장르적 관습에 대한 주목 대신 서사 속의 핵심 인물과 성격 그리고 인간관계에 주목하였다.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의 줄거리 전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세 인물은 허미수, 허적의 아버지, 허적 세 사람인데 이들은 삼촌, 아버지, 아들이라는 가족관계 속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구렁이가 사실은 자식이며 구렁이를 죽이라는 삼촌의 요구는 자식의 정체에 의심스럽다는 판단이고, 아버지의 머뭇거림은 부정(父情)으로 인한 망설임이라는 상황을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또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와 동일한 인물 구조를 가지면서 삼촌과 아들의 입장이 보다 부각된 <낮에 찢려 죽고 자식으로 태어난 구렁이>와 <아기장수>를 비교한 결과 첫째, 아버지는 소심하며 자기 확신이나 자기 정당성이 약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이 높지만 자식을 보

호하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려 애쓰는 성격의 인물이었다. 둘째, 허미수는 이인이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자기중심적이고 독단적이며, 체제 지향적이어서 역모와 관련해서는 자식까지도 죽이라고 강요할 만큼 냉혹한 성격이었다. 셋째, 아들 허적은 자신의 능력이나 위상에 대한 자의식이 강하고, 편안하게 살기보다는 자신의 세계를 열어가려 하는 도전적인 성향으로, 규범에 굴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다음으로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는 서사의 주체인 아버지가 대상인 아들을 의심하다 밀치는 자녀밀치기서사였다. 그런데 이 이야기 내부에서는 자녀를 의심하고 밀치는 허미수의 판단이 옳은 것이며 이인적인 면모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허미수의 냉혹함과 아이의 비범함, 그리고 아버지의 참담함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없었다. 이것은 이 서사 속의 주체인 부모의 의혹이 병적일 만큼 치밀했기 때문이었다. 이 서사에서는 선후 관계의 사건을 인과관계로 논리화 하거나, 현실 자체에 대한 왜곡은 없지만 그 중요성을 왜곡하며, 대상에게 모든 악한 것을 투사하고 아버지는 희생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도록 서술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한 품고 태어난 조카 알아본 허미수>의 논리적 틈새를 눈치 채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편집증적인 의심과 적대감 속에 자연스럽게 동참하도록 했다.

## 참고문헌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평민사, 1991.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1(설화편)』, 도서출판 문학과치료, 2009.8.30, 1~1197면.

- \_\_\_\_\_, 『문학치료 서사사전2(설화편)』, 도서출판 문학과치료, 2009.8.30, 1198~2487면.
- \_\_\_\_\_, 『문학치료 서사사전3(설화편)』, 도서출판 문학과치료, 2009.8.30, 2488~3774면
- 권석만, 『현대이상심리학』, 학지사, 2008.8.10, 1~660면.
- 민경환, 『성격심리학』, 법문사, 2007.2.10, 1~524면.
- Glen O. Gabbard, 이정태·채영래역, 『역동정신의학』, 하나출판사, 1996.4.15, 28~606면.
- 강진옥, 『변신설화에 나타난 세계 인식 양상(2)-집승 원귀 환생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권10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학연구소, 1988, 327~349면.
- 강진옥, 『변신설화에서의 정체확인 그 의미』, 『진단학보』73, 1992, 165~185면.
- 김태수, 『설화에 나타나는 허목의 삶과 민중의식 -삼척지역에서 전승되는 설화를 중심으로』, 『강원민속학』 vol 20, 강원도민속학회, 75~111면.
- 신동훈, 『아기장수 설화와 진인출현설의 관계』, 『고전문학연구』vol5,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0, 103~127면.
- \_\_\_\_\_, 『전설과 민담에 담긴 좌절과 희망의 미학』, 『국문학연구』 제5집, 국문학회, 2002. 5, 7~28면.
- 신연우, 『허목 <퇴조비 설화>연구』, 『구비문학연구』 제17집, 한국구비문학회, 2003.12. 31, 383~406면.
- 정운채, 『인간관계의 발달 과정에 따른 기초서사의 네 영역과 <구운몽> 분석 시론』, 『문학치료연구』 제3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8.31, 7~36면.
- \_\_\_\_\_,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제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8. 31, 247~278면.
- \_\_\_\_\_, 『자기서사진단검사도구의 문항설정을 위한 예비적 검토』, 『겨레어문학』 제41집, 겨레어문학회, 2008.12.31, 361~397면.
- \_\_\_\_\_, 『편집성 성격장애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접근』, 『고전문학과 교육』 제1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8, 179~204면.
- \_\_\_\_\_, 『<여우구슬>과 <지네각시> 주변의 서사지도』, 『문학치료연구』 제13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10, 327~36면.
- 하은하, 『원수가 자식이 된 이야기의 이분양상과 문학치료적 의미』, 『문학치료연구』 제3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8, 111~136면.

ABSTRACT

<Heomisu who recognized nephew borned with grudge> and Paranoid  
Father and Mother Epic

Ha, Eun-ha

The paper analyzes personality and paranoid characteristics in <Heomisu who recognized nephew borned with grudge>.

In <Heomisu who recognized nephew borned with grudge>, main characters are Heojeok, father of Heojeok and Heomisu. These are uncle, father and son in a family relationship.

For analysis of stereoscopic figures, <Heomisu who recognized nephew borned with grudge> was compared with the other two works. The compared works have identical character structure with <Heomisu who recognized nephew borned with grudge>. But Position of uncle and his son was further highligh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nature of my father is timid, weak self-confidence and anxiety. My father was an effort to change the nature to protect children. In the work, Heomisu was a great person. But the truth is that he was ruthless parent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heojeokui is aggressive.

In the <heomisu who recognized nephew borned with grudge>, the epic was progresses in the view of heomisu. and The <heomisu who recognized nephew borned with grudge> was the epic of pushing children. Heomisu's discretion is similar to that of the paranoid.

**Key Words** <heomisu who recognized nephew borned with grudge>, paranoid, the epic of pushing children, Heomisu, human relation, father and mother epic

논문투고일 : 2010. 3. 31

심사완료일 : 2010. 4. 30

게재확정일 : 2010. 5. 14